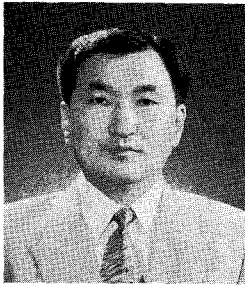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강 용 식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버들농장 대표

자 조금 제도를 도입한지 10여 년이 되었다. 그 동안 숱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 새해 축산의무자조금 시행 원년을 맞아 각 축산단체들은 자조금 설치 준비 위원회를 구성, 세부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의원 선출 준비를 하는 등 연초부터 분주하다.

하지만 우리 육계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의무자조금법이 입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계육협회가 종내 임의 자조금 제도를 고집하고 있어 의무자조금을 시행하려고 노력해 온 정부와 양계협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떠나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 자조금이란 무엇인가?

영세한 육계업자가 육계 판매액에서 조금씩 거출한 돈으로 교육, 연구, 상품개발과 소비홍보에 사용하여 육계업의 앞날을 걱정하고 스스

로 살아갈 길을 개척하는데 쓰여지는 자금이다.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자조금 제도로 인해 도움을 받게되는 모든 육계 생산자의 의무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저버리고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영세한 생산자들을 등에 업고 이윤추구 및 영리에만 목적이 있는 단체가 임의 자조금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는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육계업계에는 불황의 그늘이 가득 드리워져 있다. 우리 생산자 스스로 살길을 찾지 않으면 아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 소속 생산자를 빌미로 사기업의 이전투구(泥田鬪狗)만 해서 되겠는가!

하루 속히 양계협회가 육계자조활동자금 설치 단체로 결정되어 자조금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될 것이다. 한국의 농민같이 체질적으로 정부 의존적인 상황에서 자조금이란 받아들이기 힘든 과제이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우리업계도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 이때 혼자만 생존하려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할 때이다. 발상의 전환만이 발전하는 길이다.

육계자조활동자금은 육계 수급, 가격 안정과 함께 육계인이 육계산업과 정책 형성의 주체가 되게 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육계자조활동자금 조성을 위한 육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양계**